

교회 3대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
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롬 6장 13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신문사 소석관 115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주일 도시락지참 운동전개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성도의 교제도 「주간충현」신문사 4월부터 캠페인

지난주 보도한바와 같이 주일엔 테프보
급, 성경찬송 판매 등을 일체 중지하기로
당회가 결정하고 4월 첫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그뿐 아니라 주일엔 집에서 손수 만든
음식(개인)이외엔 지입이 금지되었고, 본교
회 만나홀(교회식당)을 이용토록 각 부서에
이미 지시가 내려간 바 있다.

이에따라 「주간충현」신문사는 주일성수
와 성도간의 효율적 교제를 위하여 4월부
터 「도시락 싸오기 운동」 캠페인을 펼치기
로 했다.

성도들 모두가 각자 집에서 도시락을 파
련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나누어먹
는 즐거움과 성도간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운동이 당회원으로부터 각급 교회학
교, 그리고 봉사하는 부서들에게까지 파급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일에는 도시락을 싸오도록 노력해 봅
시다.

장로 성경공부 실시

매주일 오후5시 당회 휴게실서

본교회 장로회는 4월9일(주일) 오후5시
장로휴게실에서 성경공부를 갖기로 했다.

강사는 신복윤현동목사. 장로들의 많은
참여를 주회측은 바라고 있다.

충현기도원 이용안내 최소한 1달전에 예약을

본교회 충현기도원을 이용하려면 어느
부서든지 최소한 1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다.

우리교회 성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교회 성도들이 충현기도원을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
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그래서 100~200명 단위의 집회는 1개월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200~400명
단위는 2개월~3개월 전에, 그리고 5백명
이상은 5개월 전에 신청할 것을 기도원 담
당은 안내하고 있다.

우간다난민에 구제금 1만불 보내

교회 구제위원회는 지난 4일(화) 오전10
시30분 선교관305호 회의실에서 우간다 난
민을 위한 구제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
구제부장과 본교회 위임목사와 담당장로들

이 참관했으며 구제금은 미화 만불(한화 670
여만원)이었다.

이 구제금은 지난 3월24일 고난주간시
전교인이 하루 금식하여 모은 헌금이었다.

미래세계지도자 초청전도대회 오늘오후1시 4부예배

교육위원회와 고등부(부장/최무길장로)
가 공동주관하는 미래세계의 지도자 초청
전도대회가 오늘(4월9일) 오후1시(4부예배
시) 본당에서 개최된다.

강남의 고등학생 6천여명이 특별초청되
어 개최되는 동전도대회의 주강사는 이중
윤위임목사이다.

장년교우들은 1부~3부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부득이 4부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성도는 갈릴리홀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모니터 설치했음)

회계감사실시

교회는 오는 4월16일부터 23일까지 1/4
분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각위원회와 찬양대, 남·여전도회, 그리
고 교회학교 각부 부서의 회계담당자들은
출납장과 원장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선
교관 404호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
다.



▲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교회당 주변에 식수하고 있다.



▲ 우간다난민에게 구호금을 전달하는 광경(본교회 이중윤위임목사가 전달).

카메라 초점

제2회 충현부부 교양대학

5월4일~6월1일 매주 목요일 오후7시~9시

초대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
는 배필을 지으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의 뜻을 좇아 아름다와야 할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 물들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가정과
부부관계의 요체인 사랑을 상실해가고 있
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숙한 부
부관계를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교
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는 "올바른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 아래 제2회 충현
부부 교양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989년 4월 9일

충현부부교양대학

학장 이중윤 목사

충현훈련복 판매 1벌에 8천원씩

5월 12일 충현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위원
회에서 이날 착용할 충현훈련복을 성도
들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동훈련복은 1벌에 8천원이며, 구입처는
교육위원회(소석관 103호)사무실이다.

지상강단

〈출애굽기 33:17~23〉

현대는 P.R시대 즉 선전의 시대이다. 뭘가 보여주고 나타내지 않으면 잘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한다. 우주 만물 가운데 신비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신비의 베일을 두시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할 법하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세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하고 외치지 않았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1. 천지만물을 통해 보이신다.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 19:1)

2. 역사 특히 구속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신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라. 장면마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난다.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시내산에서는 뿔뿔한 구름과 우뢰·번개와 나팔소리 가운데 임하셨다(출 17:16~19).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보기를 원했으나 죽을 인생에게는 감당 못할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선하심과 이름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시면서 그의 뒷모습만 허락하셨다. 이는 바로 우리 위해 남기신 그의 영광의 자취 즉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는

여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2:11) 산위에서 초자연적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마 17:1-8) 그의 삶 자체가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셨으며(요 13:31),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영광 나타내셨고 장차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영광나타내신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천지만물 · 구속의 역사 ·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야 한다

것이 아닌가!

3.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히 1:3). 죄인들의 어둠과 가리워진 눈을 그들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의 눈을 뜬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증명되었다(요 1:14). 그리스도께서는 이적을 통하

4.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신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음받았으나 범죄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되고 말았다(롬 3:23).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롬 5:3). 이같이 구속받은 무리 곧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신 주께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신

다(엡 5:27). 이 얼마나 황공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이로 보건데 교회의 사명은 분명해진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하는 일이다. 복음전도를 힘껏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 교회의 지상사명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복음전도와 구제 · 선행 이 두 가지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의 사명이다. 김영구(목사 · 제6교구 지도)

독자의 광장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구름같이 모여오는 너희들을 환영한다. 잃었던 아들 딸을 다시 찾는 기쁨으로 너희들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말로 잘 왔구나 참으로 반갑구나. 썩썩한 그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티없이 맑고 명량한 그 모습에 하늘의 천사들을 보는것만 같구나!

사랑스런 아들 딸들아!

믿음직한 그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할꼬 대견스럽고 어른스런 그 모습에 이 나라의 밝은 앞날을 보는것만 같구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너희들과 비교할까. 무한한 가능성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큰뜻을 품어다오 어엿하게 살아다오 힘차게 살아다오 대범하게 살아다오

믿음직한 아들 딸들아!

너희들의 양어께에 이나라 이민족이 달려 있구나. 교회의 앞날이 달려 있구나. 태산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다오. 실망하지 말아다오. 낙심하지 말아다오. 큰소망을 가져다오. 큰뜻을 품어다오. 이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다오. 이나라의 기둥들이 되어다오. 온세대를 다스리는 큰지도자가 되어다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다오.

재랑스런 아들 딸들아.

착하고 착한 그 행동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순진한 그 모습에 천국을 보는 것 같구나. 너희들의 생애모습에 세화망을 보는것 같구나. 티없이 자라다오. 흠없이 자라다오.

아름답게 자라다오. 자랑감이 되어다오.

혈기를 자랑 말고 지식을 자랑말라. 정말로 실력자는 자랑하지 않는단다.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물은 깊으면 표면이 조용하느니라 겸손하고 어진 자가 최후의 승리가 된다. 평범한 이진리를 잠시도 잊지말라. 너희들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너희들의 소망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라.

보배로운 아들 딸들아!

너희는 세상의 다른 학생들과는 구별되게 살아다오. 가치관이 다르고 소유자가 다르단다. 너희들의 본적은 천국에 있느니라. 행동을 달리하라. 말을 달리하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결따라 가느니라. 환경을 극복하라. 현실을 초월하여라. 결단코 불평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라.

지금의 교생은 강래의 영광이요

미래의 큰현이나라 많은 친구를 가지어라. 그러나 조심하고 가려서 사귀어라. 좋은 친구는 백만 원군이냐 나쁜 친구는 지옥의 동행자가 되느니라.

믿음직한 아들 딸들아!

믿음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큰뜻을 가져라. 관용을 배풀어라. 큰인물이 되어라. 큰사람이 되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것이다. 참되게 살아다오. 정직하게 자라다오.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다오. 부패한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다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어다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난폭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아라. 무한한 가능성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충분한 실력을 구축구축 쌓아라.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히어라. 실력자들이 되어다오. 보배들이 되어다오. 너희들이 이나라 이사회회의 주인이 되는 날 밝은 세상을 이룩하라. 번영과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룩하라

박철구(고등부교사)

충현살롱 경로대학

●입학안내

교육기간: 1989. 4. 13~6. 29(12주)

교육장소: 충현교회 갈릴리움

입학자격: 만 60세 이상(남녀)

- 교육에 참여하여 수강할 수 있는 분
- 교직원수, 줌위에 손상이 없는 분

●불신자도 환영함.

등록기간: 1989. 3. 1~4. 12

입학원서, 증명사진 3매

입학절차: 주민등록등본1통, 서약서, 등록금 5,000원

접수처: 본대학 사무실(본당 1층)

5월 12일 충현올림픽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부서: 경기진행부, 심판부, 시상부, 체점기록부, 시설관리부, 차량경비부, 홍보부(사진, 비디오), 봉사부, 섭외부, 기타

※ 신청은 본 조직위원회(선교관 402호)

장소: 정신여고운동장

올림픽조직위원회

제2의 영적 각성운동 시온성 대행진

6월6일~6월20일 15일간 본당에서 개최
행사준비위한 지휘본부 설치, 조직참모 임명

전교인이 참여하는 「시온성 대행진」이 오는 6월6일(화) 새벽부터 6월20일(화)까지 15일간 본당에서 개최된다.

새해배당 헌당 이후 하나님께서 충현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통한 제2의 영적각성운동을 실시하므로써 개인과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부흥발전하며, 나아가서는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간구하고, 북한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민족화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시온성 대행진」의 참모진이 구성되었다.

그뿐 아니라 「시온성 대행진」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지휘본부를 본당 203호실에 설치하는 한편 지난주간(4월2일)부터 매주일 오후4시 참모회의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조직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김창인목사, △사령관=이종윤목사, △참모장=오태희장로, △기획·행정참모=김준태목사, 구명신전도사, 박승준장로, 차신득장로, 김구형집사, 양종섭집사, 노영숙권사, 박효지집사, △동원참모=김학진목사, 오정현장로, 김여순집사, 양승희권사, △행사참모=김영구목사, 강은원장로,

최윤덕집사, 김용숙집사, △홍보참모=김연이전도사, 김차생장로, 이승철집사, 조혜순



집사, △봉사참모=김성윤목사, 문홍구장로, 문명애권사, 권명옥집사.

가운데 이양우목사 사회로 진행, 오태희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이종윤위임목사의 환영의 말씀, 축구선수 이영무전도사의 특별신앙강증이 있었다. 교구별 만남의 시간, 교회안내 비디오상영 등이 있은후 새가족들에게 이종윤목사의 신간저서인 「크리스찬의 신앙곡선」이 선물로 증정되었다.

새가족환영회 성황

교육위원회와 새신자부가 공동 주관한 충현 새가족환영회가 지난 4월2일 오후2시 30분 만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3월 중에 등록한 새가족 150명, 인도자 및 교역자 장로 등 250여명이 참석한

제2학기 교회갱신과 성장위한 목회자세미나

5월1일~7월3일까지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개최

본교회가 주관하는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원장/이종윤목사)은 제2학기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오는 5월1일~7월3일 오후2시부터 5시20분까지 충현교회 갈릴리홀에서 개최한다.

수강대상은 전국의 목회자이며 원서교부 및 집수는 4월10일부터 5월1일까지 본원 소정양식의 원서, 증명사진 한장, 그리고 후보 또는 교역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금은 한학기에 1만원이며, 등록처는 충현교회 내 소석관103호(주일은 제외)이다. 제2학기 목회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교회·나라위해 기도

권사회(회장/이옥녀권사)는 지난 3월31일(금) 오후3시 선교관 5층 당회실에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약 70여명의 임원 및 화원들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는 이종윤위임목사의 기도제목을 위한 말씀을 들은 후 통성기도와 개인기도를 가졌다.

권사회는 매월 수요일부예배 후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했는데, 첫주일은 1반, 둘째주일은 2반, 셋째주일은 3반, 그리고 넷째주일은 4반이 맡기로 했다.

일 자	제 1 교 시	제 2 교 시
매주 월요일	14:00~15:30(90분)	15:50~17:20(90분)
5월 1일	*성경공부 과목: 산상보훈 강해 강사: 이종윤목사 영국 성안드류스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현 충현교회 위임목사	설교자 어휘 사용법 이성현 목사 미국 웨이스신학교 신학박사 현 대구서문교회 담임목사
8일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곽선희 목사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학박사 현 소망교회 담임목사
15일		예배와 음악 최시원 교수 미국 보스턴대학원 음악교육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교회음악 교수
22일		강해설교의 방법 박영희 목사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현 충신대학 학장
29일		설교와 교회성장 박조준 목사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졸업 현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6월 5일	신간: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이종윤	설교준비의 실제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이진태 목사 미국 브랜디시대학교 철학박사 현 개혁신학연구원 원장
12일		예식과 설교 김창인 목사 미국 유틸대학 명예신학박사 현 충현교회 원로목사
19일		에스겔서에 나타난 설교자상 윤영탁 목사 미국 시대신학박사과정 수료 현 합동신학교 교수
26일		현대설교 유형 분석 박종순 목사 플러신학교 목회학박사 현 충현교회 담임목사
7월 3일		교회의 예배의식 정규남 목사 미국 루터대학 철학박사 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학장

신 간 안 내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이종윤목사 지음

본교회 이종윤 위임목사가 신간 「크리스찬의 신앙곡선」이란 제목으로 단행본을 펴냈다.

지은이는 이 책을 내놓으면서 「지난 수 년동안 한국교회의 한 변두리에 서서 교회를 열려하고 주님의 양들을 바르게 인도해 보려고 피력이나마 몸부림쳐 본 흔적을 이 한권의 작은 책으로 묶게 되었다.」고 말하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문제들에 대한 신앙증진과 특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과 가

치관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차례에 의하면 ①크리스찬과 신앙, ②크리스찬과 생활, ③크리스찬과 교회 등으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각주제별로 집필 편집한 점이 특색이며, 결혼가정, 직업, 재물, 연보, 조상숭배에 대한 성경적답변을 유출한 점이 특이하다.

(국판 331쪽, 값3,500원. 초판은 이미 매진되었음)



식목일 식수

본교회 이종윤위임목사를 비롯한 각위원장, 그리고 교회직원들은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교회본당 앞 갯세메네 동산에 느티나무 등 많은 나무들을 식수했다.

당일 오전9시30분 식수에 앞서 간단한 기도회를 가졌으며, 성도들의 헌수한 나무들을 교회당 주변에 심었다.

충현기도원행 교회버스 운행

지난주간 교회버스가 구입되어 충현기도원(광주군 초촌면)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정기적인 노선버스가 없어서 불편을 겪어왔었는데, 버스구입으로 기도운동이 전보다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운행시간은 다음과 같다.

▲매주 월,화,목,금요일(오후8시 본교회 당 출발)

▲매주 주일, 수요일은(저녁예배후 오후9시 본교회당 출발)

▲매주 월,화,수,목,금,토요일(새벽기도회 후 오전6시 기도원출발)

특별논단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변화속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주일성수 문제다.

10년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외국 유학자나 분들의 주일성수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았으나 이제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신앙사상은 사라져 버리고, 강단에서 주일성수문제에 대한 설교도 들어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죽은 부모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제사까지도 미풍양속이니 지내도 좋다는 때가 되었다.

특히 주일성수 문제는 보수교회마저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

출애굽기 20장8-11절, 히브리서 4장9절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

안식일은 주일의 전신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무궁한 안식의 표상이다. 박윤선목사는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지킬 때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무궁안식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인간은 이와같은 소망을 가질 때 현재의 생활에서도 거룩되어 살게된다"라고 하였다.

전 평양장로회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크레인>박사는 "주일이 없는 곳에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적극적인 명령에 기초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인 필요에도 기초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기독교신자라면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말인 것이다.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1. 주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20장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다. 사람은 분주함으로 또는 쾌락에 젖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안식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신자는 다른 것을 잊을지라도 주일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특별한 역사를 하시기 원하신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늘의 음성과 대세 영광의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이었다.

다』는 말인데 구약에 830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고, 한정되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4장16절에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안식일마다 반드시 회당에 가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배모범 제1장 2항~5항에 "주일은 종일토록 예배하는 일에 씀이 가하며..... 식물까지도 미리 준비함으로 공동예배에 구애받지 않도록하고..... 주일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은 권속으로 자기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의 목사가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고..... 개회시부터 일일단합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가하고 마지막 축도할 때

주일을 언제나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고 식당출입, 시장보는일 주일엔 삼가야

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불가하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더러운 생활이 깨끗해지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상한 목적을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있는 날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식물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먹는 것, 식사를 위해 시장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은 예배시간에 졸지 않도록 오전 오후에 잠깐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안식일을 거룩히"란 말은 일부분이 아니고 종일 거룩히 지키는 것을 말한다. 옛세동안 전적으로 자기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하루를 지키는데 인색해서야 될 말인가?

특히 도시교회 교인들은 물론 성가대 그 외 직분받은 분들까지도 주일날 예배 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먹고 다방출입하고 등산, 낚시, 운동구경, 영화구경, 유원지 등으로 또는 장사터로 가고있다. 오늘날 도시

그러므로 주일 안식을 지키는 자는 먼저 다른 옛세동안을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일성수의 선행조건이다. 옛세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놀다가 주일에 꼭 예배당에 간다고 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옛세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옛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주일에 일거리가 밀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힘써 일하는 자가 주일 안식의 참 맛을 알게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다. 맡은 일을 게을리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린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4. 주일은 휴식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출애굽기 20장10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레위기 23장31절에도 "너희는 아무 일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하였다.

장로교 정치조례문답 161문에 "주일에 모든 영업하는 일은 휴식하고"라고 했으며 예배모범에도 "모든 육신에 관한 일을 정돈하고 종일 거룩히 안식할지니"라고 하였다. 일은 축복이다. 그러나 일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쉬는 것이 있어야한다. 사람은 한 주일에 하루를 안식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짐승에게 이레중 하루를 쉬게하고 옛세 동안 일을 시킨 결과 더욱 능률이 올랐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류가 주일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육신생활에도 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령의 위안도 주일을 지키므로 얻게되는 것이다. 주일을 존중히 하지않는



소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고 <주남선>목사는 "쉬는 것도 일이다"라고 하였다.

5. 주일이 불안의 날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옛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많은 세칙(細則)을 제정하여 고통의 날로 지켰으니 이는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불안일(不安日)이었다. 그들의 세칙은 5백가지 이상이었는데 몇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것, 안식일에 소가 구덩에 빠지면 끌어내어도 좋으나, 만일 사람이 빠지면 하루동안 그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 옷 만드는 직공은 안식일이 다가오는 저녁에 바늘을 가지고 출타하지 말것, 그 이유는 집으로 돌아오는 때는 벌써 안식일이 되어쓸 터인데 그 바늘을 안식일에 운반하게 되기 때문이라 했다. 안식일에는 서기관이 글쓰는 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안식일에 벌레에게 물려도 그 벌레를 그대로 내버려 둘것, 만일 그것을 잡으면 사냥죄에 걸린다고 했다. 이런 세칙들이 24개장에 걸쳐 가득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불안한 날로 쓰는 일에 대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다. 주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매여 버리고 참 안식을 거기서 얻는 것 보다는 규칙 때문에 거북스러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바리새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주의해야 한다.

6. 주일에는 오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히 우리가 이날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이날은 주님의 날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큰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침내는 생명과 영혼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거룩히 곧 구별되게 지키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하며 교회가 교인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2. 주일을 거룩히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구별해서 드린

교회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10장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움을 볼수록 그러하자"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일은 무엇보다도 예배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정성껏 바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주일 아닌 다른 날은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한 자라야 주일을 지킬 자격이 있다.

출애굽기 20장9절에 말씀하시기를 "옛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라고 하였다.

프랑스 파리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또 영국의 정치가 <클래스턴>은 말하기를 "나의 길고 바쁜 일생에 있어서 나의 생명과 용기를 유지시켜준 것은 안식일마다 나의 수고하는 역사를 쉬고 그날을 지키에 있었다"고 했다. 분명히 파로운 근육은 휴식함으로써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되었고 휴식한 마음은 좀더 창조적이 될 수 있으며 힘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 직무로부터 완전히 면하는 것은 가장 큰 안식일이요, 또한 회복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휴식은 단조로운 타락의 결과를 극복하게 하는 가장 귀한 요

